

Rio에서 Rio+20까지

임낙평(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1. Rio 회의의 배경(스톡홀름에서 리우까지)

- 지난 72년, '하나 뿐인 지구' 스로건 아래 유엔이 인간환경회의를 개최, 인간환경선언(일면 스톡홀름 선언) 채택. 최초로 환경과 생태계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 인간의 기본 권으로서 환경권의 보장과 이를 위한 국제사회, 모든 국가, 시민들의 책무를 규정. 이무렵 로마 클럽의 '성장의 한계'가 발표되고, 미국에서 '지구의 날'이 창설되었으며, Greenpeace라는 강력한 환경단체 등장. 이 선언 이후, UN에서는 UNEP가 창설되고, 당시 선진각국에서 환경생태계 관련 법률과 환경부 등이 생겨나 활동 시작함.

- 한국의 경우, 80년 5공 헌법에 환경권이 반영되었음. 관련 법률과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고 행정부서도 편제되기 시작함.

- 스톡홀름 선언 20주기를 기해 UN이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를 준비하고 개최함. 72년 선언 이후, 세계 각국, 특히 선진제국과 개도국 경제개발과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환경생태계 문제가 심각해 짐. 개별 국가를 뛰어넘어 지구적 문제로 확산되었고, 이에 대한 지구적인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책이 요청되었음. 지구적 차원의 주요 이슈로서 기후변화, 오존층파괴, 사막화, 산림파괴, 생물종다양성의 감소, 극지방 해빙 및 해수면 상승 등이 뉴스에 등장함. 또한 개발과 성장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 심각함.

- 이에 유엔은 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에서 부르트란트 보고서, '우리들의 공유한 미래'가 채택됨. 여기서 리우회의의 기본정신인 '지속가능한 개발'이 등장함. 또한 유엔은 기후변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목적으로 IPCC(기후변화범정부간위원회) 창설하여 활동을 개시함.

- 90년 접어들어 베르린 장벽의 붕괴 소비에트연방(소련)이 붕괴, 동구라파의 체제의 붕괴와 함께 '지구환경생태계' 이슈가 세계의 주요 화두로 등장하면서 유엔 총회는 총회 의결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일명 지구정상회의 혹은 리우회의)를 개최함. 스톡홀름회의의 슬로건이 '하나 뿐인 지구'였는데, 리우회의의 '우리 손으로' 이를 극복하지는 의지 강조.

2. 리우회의의 결과

- 1992년 6월 환경의 날 전후, 스톡홀름 회의 20주년을 기념한다는 취지로 개도국인 브라질 이주에서 개최됨. 리우회의 기본정신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로 압축되어 있음. 여기서 채택된 '리우선언(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에 나와 있고 27개 구체적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음. 리우선언을 원칙을 토대로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의 강령에 해당하는 40개 구체적인 실천 항목으로 구성된 'Agenda 21'이 채택됨.

- 더불어 리우회의는 당시 지구적 차원의 환경생태계 이슈를 극복하기 위해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 협약, 생물종다양성 보존협약, 산림보전원칙, 등이 체결되는 성과를 냈음.

- 리우회의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니고 있음.

• 첫째, 환경생태계 이슈가 지구촌의 공통의 과제로 등장했음. 사상 초유의 회의 규모를 가졌음.

• 둘째, 유엔을 비롯한 국제적인 의사결절과정에서 다양한 NGO들의 의사를 존중함. 각국의 NGO 초청되어 자발적으로 참여함.

• 셋째, 미래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혹은 발전)'의 개념이 새롭게 제시됨. 이 개념은 환경(보존)과 경제(개발), 공평(성과공유)로 정리할 수 있음. 이 개념에 대한 논란은 즉, 개발을 정당화시켜준다는 의미에서 문제제시가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

• 넷째, 환경생태계 문제와 지구촌 빈곤문제가 동시에 해결 추구. 즉, 남북문제의 해결이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됨. 지구촌 환경문제는 선진국 야기, 빈곤국가(남반부) 피해 지속. 그들의 개발필요와 지원 강조.

• 다섯째, 기후변화, 종다양성 감소 등의 대안을 모색하는 조약, 협약이 체결되어 문제 해결을 위한 토대를 구축함.

- 그럼에도 환경단체 등은 선진국들의 미온적 자세로 '말의 성찬', '구체적 성과 미흡하다면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했음.

- 한국의 경우, 정부나 NGO 등이 대거 참여했으나 사전 준비와 정보 미흡 등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함.

3. 리우에서 리우+20까지

- 리우이후 유엔은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유엔 지속가능위원회(UNCSD)를 설치하여, 리우 회의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 해움.

- 리우에서의 결정이었던 리우선언과 Agenda 21, 즉 지속가능한 발전이 한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의 정책적 기반이 되었음. 관련 법률과 제도에 이 정신이 반영되었음.

- 또한 리우에서 합의한 기후변화협약 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각국이 이를 비준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도 협약에 가입하고 있음.

- 리우 10주년인 2002년 8월,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에서 리우+10회의(유엔 지속가능개발정

상회의, WSSD)가 개최됨. 리우 10년을 평가하고 향후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나, 이 회의 또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말의 성찬으로 끝남. 리우-10이라 혹평. 특히 교토의정서 탈퇴로 반미 분위기 고조되었음. 선언이 채택되고 이행계획 등이 합의되었으나 크게 주목 받지 못함.

- 리우 20년 동안의 평가를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리우에서의 합의 진전 없음.
- 둘째, 지구 전체적으로 경제발전과 성장이 이뤄졌으나 오히려 빈부 격차 증가, 빈곤 문제 심화. 남북문제 심화.
- 셋째,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등이 체결되었으나 온실가스 총량 증가했고, 미국 등은 의정서 탈퇴, 기후재난 계속되고 있음. 전체적으로 지구 환경생태계 열악해짐.
- 넷째, 미국 등 선진국의 미온적 자세, 한국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이 신흥경제대국으로 성장, 지속불가능한 성장의 지속. 저개발국, 최빈국의 증가.
- 다섯째, 국제적 합의나 조약 등이 국제법이나 국내법에 따라 구속력을 지니지 못하고 권고나 자율적 실천형태를 지니고 있음.

- 이런 점어들 리우+20회의에 쟁점이 될 것임. 어떤 합의가 도출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임.